

보도 일시	2022. 8. 25.(목) 11:00	배포 일시	2022. 8. 25.(목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이동엽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찬 (02-2100-2964)
	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	책임자	실 장	이상아 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 장	이태기 (02-3145-7242)
			팀 장	곽정민 (02-3145-7244)
			팀 장	송상욱 (02-3145-7245)

「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」 제10차 회의 개최 -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·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-

I 회의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(목) 「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」 제10차 회의*를 개최(서면회의)하여,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.

* 구성: 금융위(부위원장 주재), 금감원, 예보, 보험개발원, 회계기준원, 학계·연구원, 보험협회

II IFRS17 도입시 준비금 운영방안

1 추진 배경

- 보험부채 시가평가시,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¹⁾ 해약 환급금과 ²⁾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(미달사유 후술)

* 1) **해약환급금**: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

2) **보증준비금**: 종신·변액보험 등 상품에서 투자실적 저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·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

- ➡ 감소된 부채는 자본(이익잉여금)으로 전환되는 바,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*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* 보험부채 감소 → 자본(이익잉여금) 증가 → (주주)배당가능이익 증가 → 주주 배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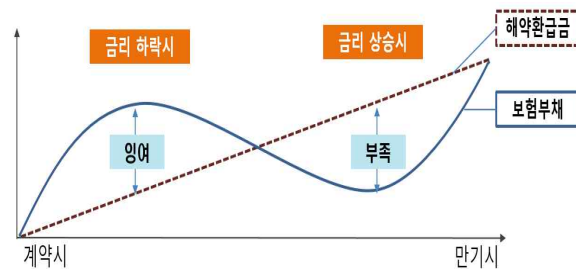
2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방안

-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(원가평가*) 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(해약환급금 부족액)은 자본으로 인정됩니다.

* 기초서류에 따라 사전 협의된 예정이율(원가방식)로 보험료를 부리하여 산출

- 다만,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.
-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하여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※ 금리 변동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보험부채



- 금리하락 → 시가평가 할인을 하락 → 보험부채 증가 → 「보험부채 > 해약환급금」
- 금리상승 → 시가평가 할인을 상승 → 보험부채 감소 → 「보험부채 < 해약환급금」

- 이에 따라, 감독회계 上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內 「해약환급금 준비금(법정준비금)」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법정준비금은 (주주)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되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해약환급금 부족액 관련 K-ICS 제도 개선방안은 추후 논의후 확정 예정

※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 전·후의 재무상태표 비교

< 개선 전 >		→	< 개선 후 >	
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 margin-right: 5px;">해약환급금 (100)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">▲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">부채 (시가평가)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">80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 background-color: #cccccc;">20 (이익잉여금)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">자본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5px;">▼</div> </div> </div>	⇒ 사외유출 가능	→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 margin-right: 5px;">해약환급금 (100)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">▲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">부채 (시가평가)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">80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 background-color: #cccccc;">20 (법정준비금)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5px;">자본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5px;">▼</div> </div> </div>	⇒ 사외유출 불가능

3

보증준비금 운영방안

- 현재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부채 內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, IFRS17 도입 후*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.

* 보증준비금도 보험회사의 현금 유·출입요소로 평가되어 시가평가 보험부채에 통합 계산

- 그간 보험회사는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온 바, 시가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*하여 既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(이익잉여금)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 보수적인 수수료 책정 → 「수수료 수입(현금유입) > 보증비용 지출(현금유출)」 → 보증 부채 감소

-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에 「보증준비금의 적립」을 명시하고 있고, 보증준비금은 장래 발생할 보증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내 유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

-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「보증준비금」도 이익잉여금 內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①기준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②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「보증준비금」으로 적립하며,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사외 유출이 제한됩니다.

-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은 '22년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'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「보험업법」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,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.